

오피니언

光日春秋

김열규



옛날이나 지금이나 적잖은 한국인들에 게 권력은 매력 덩어리다. 그러기에 조선 조시대에 과거시험 보러 가곤 하면, 그 소 위 '선비'들이 이틀이 남지 않거나 내림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 있을 것 같다. 이견 정 말이다.

상당수의 한국인 가운데는 권력은 커녕 권(權) 자만 들어도 오금을 못 쓰는 사람, 아니면 어깨에 힘주는 사람 또는 군침 삼키는 사람 등등은 수도룩할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인간들 앞에서 무척 대고 굽실거리고 따라 붙이고 하는 족속

권력과 능력과 서비스

인들 적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것 못 된 권력이라든가 사회에 걸 쳐서 흥을 떨칠 대로는 떨치고 나부낼 때로는 나부내고 설치고 하기 때문일 것 같다. 거의 만능의 힘, 마술의 힘 노릇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고위층 비서관들이 두 사람씩이나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꼴로, 우리 한국 사회가 '권력 만능 사회'란 것을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준 것은 그 증거치고도 일급의 증거다. 그들은 각 종 기관을 제 욕심대로 딱 주 무르듯 했다. 경제고 문화고 무엇이든 상 관없이 안하무인으로 굴렸던 것 같다.

그들에게 권력은 '도깨비 방망이'나 다를 게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 이럴 경우, 방망이를 휘둘러대고 두들기면, 저 '사람 도깨비'들도 문제지만 그들 방망이 질 따라서 촌촌 당사자들도 문제다. 우리의 권력은 이처럼 부리는 자에게서 나 부립을 당하는 자에게서나 다같이 '요술 방망이'인 셈이다.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권력이다. 그건 요컨대 괴물이고 요물이다. 워낙 권은 나무 이름이다. 그러던 게 저 울이 되고 무엇인가 방편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우선 권은 속임수가 되었다. 다음

욕망과 야합을 하고는 설쳐대게 되었다. 올바른 저울 노릇하면서 사회의 준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사회를 좌지우지해야 할 권력이 권모술수며 권사(權詐)에 기울 어서는 사회를 제 마음 대로 움직여보려고 들게 되었다. 그게 일부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의 권력이었다. 이제 참 다운 민주사회답게 국가권력이 변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이제 국가권력도 사법권력도 국가와 사회를 올바르게 저울질해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어야 한다. 서비스고 봉사라야 한다. 다음으로는 나머지 사회의 온갖 힘들과 병존하고 공존해야 한다. 이제 국가의 힘은 경제다. 그건 정치권력 보다 뒷자리에 앉으면 앉지 내리 앉을 수는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이며 글로벌리즘을 계기로 삼아서 문화의 힘도 마찬가지로 세가 매우 커져 가고 있다. 교육이 팔을 걷고 활개 치면서 그 힘을 과시해도 당연하다. 이렇듯이 국가권력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능력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국가·사회와 비교, 나란히, 나란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아니 스스로 그들 아래에서 굽실거리면서 서비스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는 것이 사회와 국가를 위한 권력이 될 것이다. 아니 무엇보다 국가 권력, 정치권력 그 자체를 위해서 경사스럽고 기꺼운 일이 될 것이다.

〈서강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미국에서도 명절 때면 어김없이 TV 화면에 비치는 한국의 교통대란, 올 추석에도 어김없이 지켜봐야 했다. 지금까지는 '인구 증가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지만 최근 고국 방문 뒤에는 조금 달라졌다. 차량이 많아진 것은 분명하며 왜 시민들이 꼭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것일 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국만큼 대중교통 수단이 편리한 나라도 없다는 것,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경험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살 경우 승용차를 구입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주차한 뒤 승객을 태워 운행한다. 한국은 석유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는다. 기름값도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 그런데도 자가용들이 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다. 좋은 고급 버스는 빈차로 다니고 택시들은 줄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데도 말이다. 수천석 쌓놓사를 짓는 부농은 쌀 한 톨 아끼려고 알뜰 살림을 하는데 한 평 농사지를 눈이 없어 전량을 사 먹는 농민이 매번 쌀로 술 담그고 떡 만드는 등 낭비를 한다던가 어떻게 될까. 과연 모든 사람들이 승용차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문제다.

자원 풍부한 미국은 에너지 절약하는데...

광주~서울 우등 고속버스는 비행기 일등석 만큼 편안했다. 27인석 모두 채워 운행을 해도 과연 그 요금으로 수지 타산이 맞을까 걱정할 정도로 요금이 저렴했다. 예약도 필요 없다. 언제 터미널에 도착해도 15~30분 간격으로 탑 수 있다. 택시도 마찬가지다. 현관 문만 열면 대기하다가 언제나 잡을 수 있다. 필요할 때마다 택시 타면서 돌아다녀도 천정 부지로 솟은 기름값, 자가용 유지비와 비교하면 크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다. 주차 문제도 그렇다. 미국이 한국처럼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했다면 미국인 80%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석유가 많이 매장된 나라다. 하지만 중동지역 등에서 나는 석유를 수입하면서 자신들은 에너지 절약에 신경을 쓰고 있다. 곳곳에 동승 센터가 있

생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하지만 "요즘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나 "버스가 택시 타기 위해 정거장까지 걸는 대신 편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라는 생각 등으로 차를 구입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 걱정된다. 수천만원짜리 시계를 사서 착용하는 사람들, 내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다. 만 원짜리나 천 원짜리나 시계 바늘 가는 속도는 똑 같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고장이 나면 무용지물 아닌가. 차라리 만 원짜리 시계에 천 만원짜리 보석 팔까 봐 걱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 내 생각은 그렇다. 시계가 시간을 보 기위한 도구일 뿐인 것처럼 자동차도 교통수단의 도구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차가 있다고, 값비싼 차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부러워할 것 같은가.

장애인 외면하는 운전면허학원 단속을

장애인 보호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운전면허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만체 1급 장애인과 함께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 신청을 하려는데 장애인 연습 차량이 없더라 접수조차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라 약간 화를 내며 법적으로 장애인이 면허교습을 받을 경우 그 차량을 내주고 연습을 시켜주도록 돼있지 않느냐고 항의하며 따졌더니 그때서야 장애인 교육용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해당 강사가 출장 왔으니 내일 다시 오라고 했다. 속은 썩치고 그냥 돌아왔다가 다음날 다시 갔더니 그때서야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달았더니 법석을 떨었다. 원래 장애인이 운전면허 연습을 할려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보조 장비를 달아야 한다. 운전 학원들은 이런 장비를 장착한 차를 늘 비치해 두는게 아니다. 가급적 장애인 교육은 시킬수 없다고 거부하다가 왜 안되냐고 따지는 경우에만 마지못해 일반 연습차에 보조장치를 달아 태워주는 것이다. 경찰과 행정 기관이 단속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정부는 장애인들도 운전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시·도별로 장애인 전용 운전면허 연습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심희수·광주시 북구 대충동

기고

김혁중



올해 초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 기업인 유통업체 하나가 거대 유통업체에 매각되었다. 자본의 약력과 속도, 그 밖의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싸움에서 졌다. 해당 기업에 첫 번째 책임이 있었지만, 지역 기업들 살리지 못한 책임은 해당 기업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화학 파스칼 오리는 "여우와 닭이 똑같이 자유롭다면 닭은 곧 잡아먹히게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아직은 전국을 무대로 하는 거대 자본과의 경쟁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지역 기업을 자유롭게(?) 맡볼까 한 지역민들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 10월 8일부터 광주에서 제88회 전국

향토기업의 멋진 활약을 꿈꾸며 향토기업에 대한 음해성 투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다고 한다. 나는 단 한 번도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이 다른 지역의 기업인들에 비해 낮은 도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전과 같은 기업 행태는 많이 불식되었다.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고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뛰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기업 경영 이외의 것을 가지고 흠집 내기를 하는 것은 분명 반성해야 할 일이다. 비유가 적절하지 모르겠으나 자기 것을 지켜내지 못한 민족이 번성할 예를 역사에서 보지 못했다. 흔들리지 않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을 육성해 내지 못한다면 광주·전남 경제는 스스로의 경제적 힘을 갖지 못하고 늘 정치적 판단을 구걸하게 될 것이다. 고향을 위해 뛰고 있는 지역 기업들을 위하여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지역민이 먼저 할일이 아닌가 싶다. <광주대 총장>

향토기업의 멋진 활약을 꿈꾸며

제육대회가 열리고 있다. 출전하는 선수들은 각 지역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지금껏 연마한 모든 실력을 쏟아내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기업 또한 다르지 않다. 지역의 기업들은 각 지역의 보다 운택한 삶을 위하여 뛰고 있는 대표 선수라 할 수 있다. 지역 기업은 단순히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 기업은 지역의 생산과 소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지역 기업이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생산물에는 지역의 인제와 토지, 자본이 투입된다. 결국 지역 기업의 융성은 지역 인제의 활용과 자본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며, 외지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동반하게 된다. 그뿐만아, 지역 기업이 융성하게 되면 지역 대학의 취업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2005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규모에 있어

기업인에 대한 음해성 투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다고 한다. 나는 단 한 번도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이 다른 지역의 기업인들에 비해 낮은 도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전과 같은 기업 행태는 많이 불식되었다.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고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뛰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기업 경영 이외의 것을 가지고 흠집 내기를 하는 것은 분명 반성해야 할 일이다. 비유가 적절하지 모르겠으나 자기 것을 지켜내지 못한 민족이 번성할 예를 역사에서 보지 못했다. 흔들리지 않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을 육성해 내지 못한다면 광주·전남 경제는 스스로의 경제적 힘을 갖지 못하고 늘 정치적 판단을 구걸하게 될 것이다. 고향을 위해 뛰고 있는 지역 기업들을 위하여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지역민이 먼저 할일이 아닌가 싶다. <광주대 총장>

남 속이는 구걸행위 씁쓸하다

얼마전 광주역에서 부모님을 마중나갔다가 겪은 일이다. 광주역 1층 대합실 앞에 한 노숙자가 엎드린 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절하며 도움 요청하고 있었다. 측은한 생각에 500원짜리 동전 두원을 줬는데, 옆에 있던 덩치 큰 행인도 천원짜리 지폐 두장을 건넸다. 대합실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나오는 길에

그 행인이 노숙자 앞 상자에 또다시 천원짜리 두장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이내 그 사람들이 한 패라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는 기차를 타기 위해 역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의 동정심을 유발시켜 더 많은 기부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쇼'를 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선의마저 이용하는 사람들, 씁쓸했다. ▲김상욱·광주시 광산구 안창동

시설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끝내 강행할 건가

광주·전남지역 지방의회가 여론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의정비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및 전남 도의회 등 광역의회와 각 시·군·구의 기초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각 지방의회는 구체적인 의정비 인상폭은 정하지 않았지만 올해보다 최소 두자리수 이상의 인상을 관철시킬 태세다.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추진은 지자체 재정 현실을 외면하고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최하위로 인건비마저 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급직으로 전환된 지 1년 만에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의정비 인상은 담합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최근 전국지방협의회가 전국 15개 시·도별협의회에 지방의원

의 연봉을 해당 지역 부단체장 급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의정비 인상을 위한 사전조율 작업이 내부적으로 진행됐을 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민의견을 무시한 열치없는 행동이다.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추진은 명예직으로 시작한 지방의원의 신분에도 걸맞지 않다. 현행 의정비가 미정활동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지방의원은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지방의회가 돈벌이나 생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굽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무리한 의정비 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지역민의 신뢰부터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의정비는 지역민의 혈세인 만큼 인상은 지역 주민여론에 따라야 할 것이다. 주민 여론을 무시하고 의정비 인상을 강행하면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도농교류 촉진법 농촌 활성화 기대된다

국무회의가 9일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체질 및 휴양마을과 자매결연, 1사촌운동 등 도시와 농촌간 교류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민간운동 차원에서 추진해 왔던 도농교류가 법적·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법안은 도농 교류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체험마을과 휴양마을, 관광농업의 사업자 지정제를 도입하고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농교류 확산을 발급도 포함했다. 기업체와 민간단체의 농어촌 투자를 유도하고 농어촌에 정주하는 도시민에 대한 지원방안도 담겨 있다. 농림부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법안이 통과돼 내년 7월 시행되면 농민이나 자매결연 단체가 지방세 감면과 금융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축산물의 수입 개방시대를 맞아 농촌과 농어민의 문제는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일본과 중국 등은 1980년 후반부터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의 도농교류 촉진법은 오히려 늦었다고 할 수 있다. 농도인 전남의 입장에서 도농교류 확대는 매우 고무적이다. 도농교류는 내 고장 농산물 사주기운동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비롯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내실화되고 있다. 체험 및 휴양마을과 관광마을, 1사촌운동 등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남도와 농림 등은 구체적 추진방안과 세부계획을 확정,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낼 방침이다. 법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도시와 농촌, 정부와 상호협력력이 절대적이다. 정부는 조속한 입법과 함께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기를 바란다.

無等鼓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음악에 대한 관심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후 권력 전면에 나서기 직전이었던 지난 1974년까지 김 위원장의 행적은 음악과 예술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보천보 전자악단과 같은 서방 스타일을 모방한 음악단과 '휘파람' 등 남한에도 알려진 가요의 상당수가 김 위원장 지도 덕분에 빛을 보게 됐다. 단이 미국에서 최초의 시범공연을 벌인 것이 세계 5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뉴욕 필하모닉이 평양공연 초청을 수락했다. 연대 공연이 성사될 수 있도록 세부 일정을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미국 답방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다. 음악은 세계 공통어다. 특히 클래식 음악은 인류가 낳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인종과 세대는 물론 이념을 초월해 소통할 수 있는 예술인 것이다. 북·미간 무장관의 표현대로 '작은 타구공 하나가 지구라는 공을 움직인 것'이다. 스포츠 못지 않게 음악 역시 이념의

단이 미국에서 최초의 시범공연을 벌인 것이 세계 5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뉴욕 필하모닉이 평양공연 초청을 수락했다. 연대 공연이 성사될 수 있도록 세부 일정을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미국 답방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다. 음악은 세계 공통어다. 특히 클래식 음악은 인류가 낳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인종과 세대는 물론 이념을 초월해 소통할 수 있는 예술인 것이다. 북·미간 무장관의 표현대로 '작은 타구공 하나가 지구라는 공을 움직인 것'이다. 스포츠 못지 않게 음악 역시 이념의

뉴욕필 평양공연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